

## 아름다운 건축인

### Beautiful Architect

최근 각 학교마다 건축과에 가보면 여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명 볼까한 여학생들이 지금은 건축과에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지방에서는 70~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여학생들이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온다. 건축과 하면 남자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건축계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남자? 여자!

현재 건축인력시장을 보면 일할사람을 찾는 것이 가뭄에 콩 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처럼 보인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일할사람 찾는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건축과를 많이 만든 나라도 없을진데 그 많은 졸업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숨어버렸단 말인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와중에도 이왕이면 남자로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한다. 본인도 여자이지만 가끔은 같이 동조하면서 가끔은 알 수 없는 차별을 느끼며 여자보다 남자들을 찾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일을 남자보다 못하나? 같이 일하기가 까다로워서? 결혼하면 그만둘까봐? 결론은 이 모두가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의 경험들에서 나오는 불안함 때문이라고 본다.

그동안 여성 건축인들이 너무도 소수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보면, 일을 자신의 일처럼 멋지게 잘하는 직원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못하는 직원이 있다. 그런데 여성 건축인들은 너무도 소수였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둘 중에 하나였다. 잘하면 “저 여자는 여잔데 대단해” 하며 치켜세우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자이기 때문에” 하고 몰아가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해서 일을 쉬면,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버린다. 필자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건축을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복 많은 여자가 되어버렸다.

그럼 앞으로는 어떠한 것인가. 현재도 많은 여성 건축인들이 배출이 되고 있지만 아마도 더 많은 여성들이 이 길을 택할 것이다. 그만큼 건축이라는 자체가 여성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남성보다 더 감성적이고 섬세함은 건축을 하는데 있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달라져가는 모습

건축이라는 자체가 남성, 여성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절반이 여성이요, 그 절반이 남성이다.

이제는 달라져가고 있다. 그동안 너무도 희소가치 속에서 부담을 가지고 달려오신 선배 여성 건축인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여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정책적인 노력에 여기저기 여성 건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가고 있다. 오히려 남성 건축인들에게 역차별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 물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이는 여성 건축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나와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단순히 일이 아니면 가정이라는 숨을 곳이 아닌, 당연히 내가 이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배출되는 많은 여성 건축인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남성적인 사회에서 남성적인 공간을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적인 심리학에서 여성의 공간 인지는 남성과는 다르다.

서로의 다른 부분을 공유하여 더 나은 공간을 창출할 겨를도 없이 자본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 또한 그것을 판단하고 심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남성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남성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판단되어져 왔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제는 달라져가고 있다. 그동안 너무도 희소가치 속에서 부담을 가지고 달려오신 선배 여성 건축인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여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정책적인 노력에 여기저기 여성 건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가고 있다. 오히려 남성 건축인들에게 역차별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 물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진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다.

이는 여성 건축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나와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단순히 일이 아니면, 가정이라는 숨을 곳이 아닌, 당연히 내가 이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배출되는 많은 여성 건축인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 아름다운 건축인

얼마 전 여성건축사회가 강릉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많은 여성 건축인들이 그랬듯이 필자도 여자들 끼리만의 무언가를 구분 짓고 만든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었다.

그러나 건축을 해오면서 혼자라고 느꼈었을 부분들을 너무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겨내며 성장해온 여러 선배 여성 건축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면서 많이 자숙하고 숙연해진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여자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 이 안에서 많은 아름다운 건축인들을 만날 수 있다.

더 이상 여자, 남자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건축인을 배출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며 필자는 물론 모든 여성 스스로도 강한 열정을 버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길 바란다. 김진애 씨가 쓴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건축을 꿈꾸자』의 표제처럼 앞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건축을 갈망하는 여성 건축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이길 기대한다. ■